

일본에서 편찬된 한일 사전에서의 피동·사동 표현의 기술

이 안 구 (李安九)

1. 들어가는 말

한국어의 피동·사동 표현은 연구자에 따라 그 논의의 범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 피동이나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성을 들 수 있다.

가. ‘-이-’, ‘-히-’, ‘-리-’, ‘-기-’, ‘-우-’, ‘-구-’, ‘-추-’ 구성

예) 놀이다, 달히다, 갈리다, 안기다 … (피동)

먹이다, 앉히다, 울리다, 남기다, 비우다, 돋구다, 들추다 … (사동)

나. ‘되다’, ‘받다’, ‘당하다’, ‘시키다’ 구성

예) 사용되다, 강요받다, 거절당하다 … (피동) / 복종시키다 … (사동)

다. ‘-어지다’, ‘-게 하다’ 구성

예) 찢어지다 … (피동) / 찢게 하다 … (사동)

앞서 즐고(2007)에서는 이러한 피동·사동 표현이 한국어 사전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살핀 바 있는데, 본고는 그 후속 작업으로 일본에서 편찬된 한일 사전에서 이들 피동·사동 표현이 어떻게 기술되었는지 살펴보고 사전 처리에 있어서의 특징과 문제점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조사 대상으로는 근대 이후에 일본에서 편찬된 한일 사전 중 대표적인 사전 5종을 사용하였다.¹ 각 사전의 목록과 약호는 다음과 같다.

① <대학> 『大学書林朝鮮語小辞典』, 宋枝学, 大学書林 (1960)

- ② <천리> 『現代朝鮮語辞典』, 天理大学朝鮮学科研究室, 養徳社 (1967/80 개정)
- ③ <오사카> 『朝鮮語大辞典』, 大阪外国語大学朝鮮語研究室, 角川書店 (1986)
- ④ <코스모스> 『コスモス朝和辞典—第2版』, 菅野ほか7人, 白水社 (1991)
- ⑤ <소학관> 『朝鮮語辞典』, 小学館 (1993)

<대학>은 조선어-일본어부(약 25000어)와 일본어-조선어부(약4600어)가 함께 묶여 있는 소사전으로, 표제어 배열은 1955년에 북한에서 제정된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각각의 표제어에 대해 발음기호를 제시하였다. <천리>는 약 12만어의 표제어로 구성된 중사전이라 할 수 있으며, <오사카>는 약 21만어의 표제어를 지니는 대사전으로, 용언의 활용형을 표제어로 등재하고 활용정보를 제시하였다. <코스모스>는 표제어가 1만어 정도로 많지 않으나, 각각의 표제어에 대해 발음기호와 가타가나로 발음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용언의 활용형도 등재하였다. 그리고 <소학관>은 한국의 금성출판사와의 공동 작업에 의해 이루어진 사전으로 약 11만어를 수록하였다.

다음의 2장에서는 ‘-이-’, ‘-히-’, ‘-리-’, ‘-기-’, ‘-우-’, ‘-구-’, ‘-추-’의 사전 기술을 살피고, 3장에서는 ‘되다’, ‘받다’, ‘당하다’, ‘시키다’ 및 ‘-어지다’, ‘-게 하다’ 구성의 사전 기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근대 이후에 편찬된 한일 사전 중 오래된 것으로 1920년에 朝鮮總督府에 의해 편찬된 <朝鮮語辞典>을 들 수 있는데,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피동·사동 관련 표현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피동·사동 접사는 표제어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되다’, ‘당하다’, ‘받다’, ‘시키다’, ‘지다’, ‘하다’의 항목에서도 피동, 사동과 관련된 기술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본고에서 다루지는 않았으나 <精解 韓日辞典>이나 <民衆エッセンス韓日辞典> 역시 일본에서 출간되어 널리 사용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사전은 본래 한국에서 편찬된 한일 사전으로, 기본적으로 일본어를 학습하는 한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기존 한국어 사전의 기술을 참조하여 번역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히-’, ‘-리-’, ‘-기-’ 등의 기술

먼저 <대학>에서 ‘-이-’, ‘-히-’, ‘-리-’, ‘-기-’ 등은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았다. 이는 <대학>의 참고사전으로 제시되어 있는 북한의 <조선어 소사전>(1956)이나 문세영의 <조선어사전>(1938), 이윤재의 <조선말 사전>(1947), 유열의 <학생 우리말 사전>(1950) 등 초기 사전들²의 처리와 일치한다. 이후에 한국이나 북한에서 편찬된 사전들에서는 대부분 ‘-이-’, ‘-히-’, ‘-리-’, ‘-기-’ 등을 표제어로 등재하였으며, <대학> 이후에 일본에서 편찬된 한일 사전에서도 이들 구성은 표제어로 등재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에서는 <천리>의 기술을 살피기로 한다.

- (1) 가. -이- (補幹) ① 自動詞を他動詞にする補助語幹。㉠ 죽~다, 殺す。② 他動詞を被動詞にまたは使役詞にする補助語幹。㉡ 쓰~다, 書かせる。
- 나. -히- (補幹) ① “ㄱ·ㄷ·ㅂ”などの終声を持った語幹について、他動詞を被動詞または使役動詞にする語。㉢ 업~다, 背負われる。달~다, 閉じられる。② 形容詞の語幹について動詞にする語。㉣ 높~다, 高める。밝~다, 明るくする。
- 다. -리- (補幹) 語幹末音が“ㄹ·ㄷ”または“ㄹ”である動詞を使役形または被動形にする補助語幹。㉤ 놀다 (遊ぶ) → 놀~다 (遊ばせる)。㉥ 갈다 (かえる) → 갈~다 (かえられる)。
- 라. -기- (補幹) 多くㄴ·ㄹ·ㅁ·ㅂ·ㅅ·ㅈ·ㅊ·ㅋ·ㆁなどの終声をもった語幹について、自動詞を使役動詞に、他動詞を被動詞又は使役動詞にかえる。㉦ 남다 (残る)。남~다 (残す)。안다 (抱く)。안~다 (抱かれる)。
- 마. -구- (補幹) 自動詞を他動詞に直す補助語幹。㉧ 돌~다, 일~다。

2 한편, 이들과 함께 <대학>의 참고사전으로 제시되어 있는 <동아새국어사전>(1959)에서는 접사 구성을 표제어로 설정한 바 있다.

<천리>의 경우, ‘-이-’, ‘-히-’, ‘-리-’, ‘-기-’, ‘-구-’만을 표제어로 제시하고 ‘-우-’와 ‘-추-’는 표제어로 등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천리>의 참고문헌으로 제시된 <큰사전>이나 <민중 국어대사전>의 처리와 일치한다. 또한, ‘-이-’, ‘-히-’, ‘-리-’, ‘-기-’, ‘-구-’에 대해 그 품사를 보조용언으로 기술한 것 역시 <동아새국어사전>, <큰사전>, <민중 국어대사전>과 같은 기존 한국어 사전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에서 제시한 <천리>의 기술은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유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선 (1가)의 ‘-이-’, (1마)의 ‘-구-’에 대해서는 결합하는 어간의 음운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1나)의 ‘-히-’, (1다)의 ‘-리-’, (1라)의 ‘-기-’에 대해서는 결합하는 어간의 음운 정보를 제시하고 있어 그 처리가 일관되지 않다. 또한 ‘-히-’, ‘-기-’에서는 ‘終聲’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리-’에서는 ‘語幹末音’이라는 용어가 쓰였다. 그리고 ‘-이-’, ‘-히-’, ‘-기-’의 용법 서술에서는 ‘被動詞’, ‘使役動詞³’와 같은 용어를 쓴 것에 비해 ‘-리-’의 경우에는 각각 ‘被動形’, ‘使役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이-’, ‘-히-’, ‘-리-’에 대해서는 ‘~にする’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에 비해 ‘-기-’에 대해서는 ‘~にかえる’, ‘-구-’에 대해서는 ‘~に直す’라는 표현을 쓰는 등 각 항목의 용법 서술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

한편, 용법 설명에 있어서 ‘-이-’와 ‘-구-’는 自動詞를 ‘他動詞’로 만든다고 기술한 것에 비해 ‘-기-’의 경우는 自動詞를 ‘使役動詞’로 만든다고 하였다. ‘-기-’의 기술에서는 他動詞를 被動詞/使役動詞로 만드는 용법과 그 밖의 용법을 소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기술한 것에 비해 ‘-이-’와 ‘-히-’에 대해서는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이-’와 ‘-히-’의 경우에도 그 제시 순서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1가)에서는 ‘-이-’가 자동사와 결합하는 경우만을 언급하고 ‘높이다’와 같이 형용사와 결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으나 (1나)의 ‘-히-’에 대해서는 형용사와 결합하는 경우만을 기술하

3 ‘-이-’의 경우 ‘使役詞’라는 용어가 쓰였는데, 이는 ‘使役動詞’의 단순한 오식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고 ‘얕히다’와 같이 자동사와 결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예문 제시에 있어서 ‘-이-’와 ‘-히-’는 결합형과 그 대역어를 제시하였는데 ‘-구-’에서는 대역어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기-’와 ‘-리-’에서는 기본형과 결합형을 모두 제시하고 각각의 대역어도 함께 제시하였다.

그런데 피동·사동 접사 구성에 대한 사전 기술이 통일성을 지니지 못한다는 문제점은 (1)에서 제시한 <천리> 뿐만 아니라 이전의 한국어 사전의 기술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다.⁴ 사실 (1)의 기술은 용법 설명이나 용례 등으로 볼 때 <천리>의 참고서적으로 제시된 사전들 중에서도 특히 <동아새국어사전>과 두드러진 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천리>의 서문에서는 표제어 선정에 있어 <동아새국어사전>의 어휘를 근간으로 하였음을 밝힌 바 있는데, 표제어 선정 뿐 아니라 각 항목의 기술에 있어서도 <동아새국어사전>을 많이 참조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⁵

다음으로 <오사카>(1986)의 기술을 살피기로 한다.

- (2) 가. -이-⁹ (助幹) ① (形容詞や自動詞の語幹に付いてそれらを他動詞にする補助語幹) : 높~다 高める (<높다 高い); 죽~다 殺す(<죽다 死ぬ).
- ② (他動詞の語幹に付いて受身·使役の動詞を作る補助語幹) : 쓰~다 書かれる, 書かせる (<쓰다 書く); 먹~다 食べさせる(<먹다 食べる).

4 이 점에 대해서는 줄고(2007)에서 논의한 바 있다.

5 참고로 <동아새국어사전>의 기술을 아래에 제시해 둔다. <동아새국어사전>에 ‘-우-’, ‘-구-’, ‘-추-’는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 가. -이- (조간) ① 어떤 형용사나 동사의 어간에 붙어 형용사나 자동사를 타동사로 만드는 말. ② 타동사를 피동사나 사역동사로 만드는 말. ♣ 죽~다. 쓰~다. 높~다. ⇨-히-⁹.
- 나. -히- (조간) ① 흔히 ㅅ·ㅂ·ㅅ 따위의 받침을 가진 어간에 붙어서, 타동사를 피동사나 사역(使役) 동사로 만드는 말. ♣ 업~다. 달~다. 먹~다. ② 형용사의 어간에 붙어서 동사로 바뀌게 하는 말. ♣ 밝~다. 높~다. 깊~다.
- 다. -리- (조간) <어> 어간 끝의 “ㄹ·ㄹ” 또는 “르”를 가진 동사를 사역(使役)으로나 피동(被動)으로 만드는 보조어간. 곧 놀리다. 갈리다 따위.
- 라. -기- (조간) 흔히 ㄴ·ㅁ·ㅂ·ㅅ·ㅈ·ㅊ·ㅌ 따위의 받침을 가진 어간에 붙어, 자동사를 사역동사로, 타동사를 피동사나 사역동사로 만드는 말. ♣ 남~다. 웃~다. 쫓~다.

*同様の働きをするものに-이-, -기-, -히-, -리 (受動); -이-, -기-, -리-, -히-, -우-, -구-, -추 (使役)がある.

나. -히-³ 히 hi (助幹) ① パッチムㅏ·ㅑ·ㅕ·ㅗ·ㅛ·ㅜ·ㅡなどで終わる動詞の語幹に付いて他動詞を被動詞や使役動詞に変える補助語幹: 잡~다 とらえられる; 먹~다 食われる; 입~다 着せる. ② 形容詞の語幹に付いて動詞に変える補助語幹: 밝~다 明るくする; 높~다 高くする; 깊~다 深くする. → -구-, -기-, -리-, -우-, -이-.

다. -리-³ (助幹) [語] 語幹末音節が<ㄹ><ㄹ><ㄹ>である動詞に付いて使役・受動をつくる補助語幹: 알~다(<알다) 知らせる; 살~다(<살다) 助ける; 물~다(<물다) かまれる; 들~다(<듣다) 聞こえる. → -이-, -히-, -기-, -치-, -이키-, -이우-, -우-, -후-, -구-, -추-, -애-.

라. -기-² (助幹) (しばしばㄴ, ㄹ, ㄹ, ㄴ, ㅈ, ㅈ, ㅉなどの終声「받침」を持つ語幹に付いて) ① 他動詞を受動に変える: 담~다 盛られる(담다 盛る); 감~다 巻かれる(감다 巻く); 찢~다 引き裂かれる(찢다 引き裂く); 쫓~다 追われる(쫓다 追う). ② 他動詞を使役に変える: 감~다 巻かせる(감다 巻く); 벗~다 脱がせる(벗다 脱ぐ); 안~다 抱かせる(안다 抱く). ③ 自動詞を他動詞に変える: 남~다 残す(남다 残る); 숨~다 隠す(숨다 隠れる).

마. -우-³ (助幹) 動詞の使役形を作る補助語幹の一つ. おもに動詞の語幹が‘ㅈ’‘ㅉ’‘ㅊ’などで終わっている場合に用いられる: 재~다 眠らせる; 비~다 空ける; 태~다 乗せる, 燃やす. → -구-, -기-, -리-, -이-, -히-.

바. -구- (助幹) (自動詞を他動詞・使役動詞にする) …させる: 들~다 高める; 솟~다 引き上げる. *同じ働きをするものとして-기-, -리-, -우-, -이-, -히-などがある.

<오사카>는 ‘-추-’를 제외한 ‘-이-’, ‘-히-’, ‘-리-’, ‘-기-’, ‘-우-’, ‘-구-’

를 표제어로 등재하고 품사를 보조어간으로 기술하였다. <오사카>도 <천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술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2나)의 ‘-히-’에 대해서는 ‘ヒ hi’라는 발음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발음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2나)-(2마)의 ‘-히-’, ‘-리-’, ‘-기-’, ‘-우-’에 대해서는 결합하는 어간의 음운 정보를 제시한 데에 비해 (2가)의 ‘-이-’와 (2바)의 ‘-구-’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리-’의 예문으로 제시된 ‘들리다’의 기본형 ‘듣다’의 종성 ‘ㄷ’은 ‘-리-’와 결합하는 어간의 음운 정보로 열거되지 않았으며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리고 용어 사용에 있어서 ‘-리-’에서는 ‘語幹末音節’이라는 용어를 쓴 데에 비해 ‘-히-’의 기술에서는 ‘パッチム’, 그리고 ‘-기-’의 기술에서는 ‘終声」 「받침」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이-’의 기술에서는 ‘受身’이라는 일본어 표현이 쓰였으나 ‘-히-’에 대해서는 ‘被動詞’, 그리고 ‘-리-’와 ‘-기-’에 대해서는 ‘受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히-’, ‘-기-’에 대해서는 ‘~に変わる’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에 비해 ‘-이-’의 첫번째 용법과 ‘-구-’에 대해서는 ‘~にする’, 그리고 ‘-이-’의 두번째 용법과 ‘-리-’, ‘-우-’에 대해서는 ‘~を作る’라는 표현을 쓰는 등 용어 사용이 일관적이지 못하다. 또한 (2바)의 ‘-구-’의 경우, (2가)-(2마)와는 달리 ‘…させる’라는 대역어를 제시하였다.

한편, 용법 기술과 관련하여 ‘-이-’, ‘-히-’, ‘-리-’의 기술에서는 피동과 사동의 용법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2라)의 ‘-기-’에 대해서는 각각 소항목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용례 제시에 있어서도 ‘-이-’와 ‘-기-’는 결합형 뿐만 아니라 기본형과 그 대역어도 함께 제시한 것에 비해 ‘-리-’는 기본형의 대역어를 제시하지 않았고, ‘-히-’, ‘-우-’, ‘-구-’의 경우에는 기본형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히-’, ‘-리-’, ‘-우-’, ‘-구-’의 기술에서는 끝부분에 유사한 기능을 지니는 것들의 목록을 제시하였으나 그 제시 방법이나 표현 역시 통일되지 않았으며, ‘-기-’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언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리-’의 기술에서 유사한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제시된

것들 중 ‘-치-’, ‘-이키-’, ‘-이우-’, ‘-후-’, ‘-추-’, ‘-애-’는 <오사카>에서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다음의 (3)은 <코스모스>에서의 기술을 제시한 것이다.

- (3) 가. -이⁻⁹ [i 이] (第Ⅰ·Ⅱ語基), -여- [jɔ ㅅ] (第Ⅲ語基) ⇨ -히⁻², -리⁻⁵, -기⁻⁶ (母音語幹+. ㄱ, ㄴ, ㄷ, ㄹ, ㅂ, ㅅ, ㅇ을 語幹末音とする 子音語幹+) [接尾] (受身あるいは使役). 쓰다 書く-쓰이다 書かれる. 보다 見る-보이다 見える, 見せる. 먹다 食べる-먹이다 食べさせる. 섞다 混ぜる-섞이다 混ざる. 끊다 絶つ-끊이다 絶える. 들다 入る-들이다 入れる. 활'다 なめる-활이다 なめられる, なめさせる. 끓다 沸く-끓이다 沸かす. 붙다 付く-붙이다 付ける. 높다 高い-높이다 高める. 놓다 置く-놓이다 置かれる.
- 나. -히⁻² [pʰi 피 (ㅍ+)] / ㅿʰi 치 (ㄷ·ㅅ+)] / kʰi 키 (ㄱ+)] (第Ⅰ·Ⅱ語基), -혀- [pʰjɔ 피ㅇ (ㅍ+)] / ㅿʰjɔ 초 (ㄷ·ㅅ+)] / kʰjɔ 키ㅇ (ㄱ+)] (第Ⅲ語基) (ㅍ, ㅂ, ㅅ, ㄷ, ㄹ, ㄱ, ㄴ, ㄷ, ㄹ, ㅂ, ㅅ, ㅇなどを 語根末音とする 子音語幹+) ⇨ -이⁻⁹, -리⁻⁵, -기⁻⁶ [接尾] (受身あるいは使役). 잡다 つかまえる-잡히다 つかまえられる. 더럽다 汚ない-더럽히다 汚なくする. 밟다 踏む-밟히다 踏まれる. 닫다 閉める-닫히다 閉まる. 굳다 固い-굳히다 固める. 맞다 合う-맞히다 当てる. 맺다 結ぶ-맺히다 結ばれる. 앉다 座る-앉히다 座らせる. 익다 熟する-익히다 熟させる. 박다 (くぎ)를 打つ-박히다 (くぎ)가 打たれる. 읽다 読む-읽히다 読まれる. 밝다 明るい-밝히다 明らかにする.
- 다. -리⁻⁵ [li 리] (第Ⅰ·Ⅱ語基), -려- [ljɔ 리ㅇ] (第Ⅲ語基) (ㄹ語幹·ㅅ·ㄷ 変格·르変格+) ⇨ -이⁻⁹, -히⁻², -기⁻⁶ [接尾] (使役あるいは受身). 얼다 凍る-얼리다 凍らせる. 팔다 売る-팔리다 売れる. 물다 かも-물리다 카마스, 込まれる. 뚫다 (穴)를 開ける-뚫리다 (穴)가 あけられる. 싣다 積む-싣리다 積まれる. 오르다 あがる-올리다 あげる.

라. -기-⁶ [gi 기 (有声音+) / [?]ki 키 (無声音+)] (第Ⅰ·Ⅱ語基), -겨- [gjo 기ョ (有声音+) / [?]kjo 키ョ (無声音+)] (第Ⅲ語基) (ただしレの後では濃音が現れるものがある) (ㄴ, ㄹ, ㄷ, ㄹ, ㄷ, ㅁ, ㅂ, ㅅ, ㅈ, ㅊなどを語根末音とする子音語幹+) ⇨ -이-⁹, -히-², -리-⁵ [接尾] (受身あるいは使役) …される, …させる. 안'다 抱く-안기다 抱かせる, 抱かれる. 신다 履く-신'기다 履かせる. 끊다 絶つ-끊기다 絶たれる. 남'다 残る-남기다 残す. 감'다 卷く-감기다 卷かれる. 삶'다 煮る-삶기다 煮える. 옮'다 移る-옮기다 移す. 뚫다 むしる-뚫기다 むしられる. 맡다 引き受ける-맡기다 まかす. 씻다 洗う-씻기다 洗わす, 洗われる. 벗다 脱ぐ-벗기다 脱がす. 쫓다 追う-쫓기다 追われる.

<코스모스>의 경우, '-이-', '-히-', '-리-', '-기-'만을 표제어로 설정하고 '-우-', '-구-', '-추-'는 표제어로 설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천리>나 <오사카>와는 달리 이들의 품사를 접미사로 기술하였는데, 이는 <코스모스>의 서문에서 참고문헌으로 제시한 사전들 중 북한의 <조선말사전>의 경우와 일치한다. 다른 사전들의 기술과 비교해 볼 때, <코스모스>는 기존 사전의 기술에 의존하기보다는 용법 설명을 간결히 기술하고 풍부한 용례를 제시한다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러한 점은 <코스모스>가 학습자 사전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처리라 판단된다. <코스모스>의 경우, 각 항목의 기술이 비교적 통일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와 '-히-', '-기-'에 비해 '-리-'는 '使役'과 '受身'의 순서가 역전되어 있으며 '-기-'에 대해서만 '…される, …させる'라는 대역 표현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小学館>의 기술을 살펴기로 한다.

(4) 가. -이-²¹ [i] [接尾] 1 一部の自動詞・形容詞の語幹に付いて他動詞をつくる. ♣ 우표를 붙~다(<붙다) 切手を貼る/ 사기를 높~다(<높다) 士氣を高める. 2 他動詞の語幹に付いて使役動詞・受動動詞をつくる. ♣ 밥

으로 묶어 함께 기술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추-’에 대한 용례로 제시된 ‘맞추다’의 기본형 ‘맞다’는 <소학관>에서 형용사가 아닌 동사로 기술되어 있어 ‘-추-’의 용법 기술과 맞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한편 용례 제시에 있어서 ‘-히-’, ‘-우-’, ‘-추-’는 용언의 결합형만을 제시한 데에 비해 ‘-이-’, ‘-기-’, ‘-리-’의 경우에는 결합형 뿐만 아니라 구나 문장으로 예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리-’의 경우 다른 항목들과는 달리 예문을 제시하는 기호(㉑)가 아니라 ‘例:’로 용례를 제시하였는데, 아마도 단순한 오식일 듯하다. 그리고 <소학관>에서는 ‘-이-’와 ‘-히-’의 항목 아래에 각각 사동형 만드는 법, 피동형 만드는 법에 대한 참고적 메모를 덧붙이고 있는데⁶ 이러

6 다음의 (1)에서는 ‘-이-’에 대해 제시된 참고 메모(사동형 만드는 법)를, (2)에서는 ‘-히-’에 대해 제시된 참고 메모(피동형 만드는 법)를 제시해 두기로 한다.

(1) ㉑ 使役形のつくり方

1 漢字語系動詞の使役形

動作性名詞+하다という形をした動詞は, 하다를시키다におきかえると使役形になる.

공부하다→공부시키다 勉強させる. 준비하다→준비시키다 準備させる.

2 接尾辞による使役形

一部の動詞・形容詞は, 語幹に-이-, -히-, -기-, -리-, -우-などの接尾辞がついて使役形をつくる.(ただし, これらの使役形は数が少なく一般に他動詞として扱われることが多い.)

죽다→죽이다 殺す. 웃다→웃기다 笑わす, 笑わせる. 알다→알리다 知らす, 知らせる. 지다→지우다 背負わせる. 파다→파다 掘らせる.

3 動詞語幹+-게 하다

-게 하다の形はすべての動詞に付いて使役形をつくる.

가다→가게 하다 行かせる. 오다→오게 하다 来させる. 만나다→만나게 하다 会わせる.

この形は2の使役形とは語感が異なり, 人にある動作をするようにしむける場合にのみ使われる.

나는 딸에게 치마저고리를 입게 했다.

私は娘にチマ・チョゴリを着るようにしむけた.

→私は娘にチマ・チョゴリを着させた.

나는 딸에게 치마저고리를 입혔다.

私は娘にチマ・チョゴリを(みずから)着せた.

私は娘がチマ・チョゴリを着るようにしむけた.

먹다 食べる	먹이다 食わせる, 食べさせる	먹게 하다 食べさせる
울다 泣く	울리다 泣かす, 泣かせる	울게 하다 泣かせる

하다の代わりに만들다も使えるが, これは範囲がかなり限られる.

한 점은 학습 참조 사항을 함께 제시하는 학습자사전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되다’, ‘받다’, ‘당하다’, ‘시키다’ 및 ‘-어지다’, ‘-게 하다’의 기술

여기에서는 ‘되다’, ‘받다’, ‘당하다’, ‘시키다’, 그리고 ‘-어지다’, ‘-게 하다’의 사전 기술을 살피기로 한다.

<대학>은 하나의 표제어 아래에 여러 가지 품사를 함께 기술할 뿐 아니라 동음이의어라 생각되는 경우까지도 아울러 기술하는 특징을 지닌다 다음의 (5)는 <대학>에서의 ‘되다’, ‘받다’, ‘당하다’, ‘시키다’, 그리고 ‘-어지다’, ‘-게 하다’의 사전 기술 중 피동이나 사동의 의미와 관련되는 경우를 제시한 것이다.

- (5) 가. 되다 tɔ:da ... (中略) ... [接尾] ...される, ...になる. 주목--㉸ 注目される. 걱정--㉸ 心配になる. 삼월이 ~ 三月になる.

좋아하게 만들다 ほれさせる.

⇒ -히⁻³ [㉸㉸]

(2) [㉸㉸] 受身形のつくり方 1

① 漢字語系動詞の受身形

動作性名詞+하다という形をした動詞は, 하다가되다に置きかえると受身形になる.

조절하다→조절되다 調節される. 배달하다→배달되다 配達される.

一部の動詞は, 하다가받다や당하다にかえて受身形をつくる.

표창하다→표창받다 表彰される. 납치하다→납치되다[당하다] 拉致される.

1字漢語に하다가のついた他動詞は, ③で述べる形式になることが多い.

② 接尾辞による受身形

一部の動詞は, その語幹に「-이-, -히-, -기-, -리-」などの接尾辞がついて受身形をつくる.

쌓다→쌓이다 積まれる, 차다→채다 蹴られる, 잡다→잡히다 捕らえられる, 쫓다→쫓기다 追われる, 열다→열리다 開かれる.

③ -아지다[-어지다]による受身形

他動詞は-아지다[-어지다]がつくと, 受身または自発的な動作を表す. ⇒ 지다⁶.

만들다→만들어지다 つくられる. 넓히다→넓혀지다 広げられる. 행하다→행해지다 行なわれる.

⇒ 되다¹ [對照表], -이⁻²¹ [㉸㉸]

- 나. 받다 patt'a …(中略)… [他] うけとる, もらう, うけ入れる; まねる; さす. 상을 ~ 賞をうける. 충고를 ~ 忠告をうける. 영향을 ~ 影響をうける. 우산을 ~ かさをさす.
- 다. 당-하다 taghada …(中略)… [他] …さ(せら)れる. 패배를 ~ 敗北させられる.
- 라. 시키다 sikhida …(中略)… [接尾] …させる [名詞について使役動詞を作る]. 훈련--㉞ 訓練させる. 운동--㉞ 運動させる.
- 마. 지다 jida …(中略)… [合成述語] …なる. 커~ 大きくなる. 흩어 ~ 散らばる. 없어 ~ なくなる.

<대학>의 경우, (5가)의 ‘되다’와 (5라)의 ‘시키다’에 대해서는 접사의 품사를 설정하고 그 예문에 대해서도 ‘피동사(㉞)’, ‘사역동사(㉞)’로 기술하였으나, ‘당하다’나 ‘받다’에 대해서는 접사의 품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다’와 ‘시키다’에 대해서만 접사로서의 품사를 인정하는 것은 북한에서 편찬된 <조선어 소사전>의 처리와 일치한다.⁸

<대학>은 표제어에 대해 용법 설명보다는 간단한 대역 표현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시키다’에 대해서는 ‘名詞について使役動詞を作る(명사에 붙여 사역동사를 만든다)’라는 문법 설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되다’에 대해서는 ‘される’의 대역 표현을 제시한 데에 비해 ‘당하다’에 대해서 ‘さ(せら)れる’라는 뜻풀이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예문으로 제시된 ‘패배를 당하다’의 번역에 이끌린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받다’의 경우 ‘うけとる, もらう, うけ入れる; まねる; さす’의 다양한 대역 표현을 제시하였으나 예문으로는 ‘うける’, ‘さす’

7 접사로서의 ‘되다’의 예문 중 ‘상월이 되다’에 대해서는 ‘피동사(㉞)’라 기술되지 않았다. 아마도 자동사의 용법에 대한 예문이 잘못 제시된 것일 듯하다.

8 참고로 <대학>의 참고문헌으로 제시된 사전 중 문세영의 <조선어사전>(1938)과 이윤재의 <조선말 사전>(1947)은 ‘되다’, ‘받다’, ‘당하다’, ‘시키다’ 모두 동사로 기술하였고, 유열의 <학생 우리말 사전>(1950)은 ‘되다’, ‘받다’, ‘당하다’에 대해서는 동사 이외의 접사의 품사를 설정하였으나 ‘시키다’는 동사로만 처리하였다.

의 예문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まねる’라는 뜻풀이만으로는 어떠한 용법인지 짐작이 쉽지 않은데 아마도 ‘본을 받다’와 같은 예문을 영두에 둔 뜻풀이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뜻풀이를 제시하게 된 것은 아마도 <조선어 소사전>을 참조하였다는 점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⁹

한편, ‘-게 하다’의 경우 ‘하다’나 ‘게’의 항목 어느 곳에서도 사동과 관련된 ‘-게 하다’ 구성에 대한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지다’에 대해 <대학>은 ‘합성술어’라는 품사를 기술하고 있는데, <대학>의 일러두기에서 ‘합성술어’라는 용어는 제시된 바가 없다. (5마)에서 ‘합성술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마도 <조선어 소사전>의 기술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다음의 (6)은 ‘되다’, ‘받다’, ‘당하다’, ‘시키다’, 그리고 ‘-어지다’, ‘-게 하다’에 대한 <천리>의 사전 기술을 제시한 것이다.

- (6) 가. -되다 (接尾) ① 動詞の名詞について、その動作が自ら成り立つのを表わす語：-になる。㉠ 걱정~, 心配になる。
- 나. -받다 (接尾) 動作・行動の意味をもつ名詞について受身の意を表わす語。㉡ 주목~, 注目される。
- 다. -당하다 (當-) (接尾) (여變) 動作の受身を示す：-られる。-される。
㉢ 창피~, 侮辱される。

9 참고로 <조선어 소사전>의 기술을 아래에 제시해 둔다.

- 가. -되다 [미] ① 행동성을 나타내는 단어에 붙어 그 행동이 스스로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말. [주목~, 걱정~]. ② 일정한 명사나 부사의 어근에 붙어서 형용사를 이루는 말. [망녕~, 참~].
- 나. 받다¹ [타] ① 주는 것을 가지다. [월급을~, 영향을~]. ② 오는 것을 용납하다. [손님을~, 수형생을~, 충고를~, 벌을~]. ③ 물건을 많은 양으로 사 들이다. ④ 흐르는 것을 다른 그릇에 들게 하다. [물을~]. ⑤ 공중으로 오는 것을 잡다. [공을~]. ⑥ 우산 같은 것을 펴서 들다. ⑦ 무엇과 같게 행동하다. [본을~].
- 다. 당-하다²(當-) [타] ① 사리(사리)에 맞다. ② 어떤 행동을 입다. [패배를~, 욕을~].
- 라. -시키다 [미] 어떤 명사 밑에 붙어서 사역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운동~].
- 마. 지다⁵ [합성술어] 동사를 도와서 어떻게 되어 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커~, 없어~, 흠어~].

라. 시키다 ㉞ させる。やらせる。

마. -지다¹ ㉞ 用言の語尾“-아·-어”の後について、何がどう“なる”という意を表わす語：-なる。㉞ 넘어~, 倒れる。㉞ 높아~, 高くなる。

바. 하다³ ㉞ ㉞ …(中略)… ㉞ 用言の副詞形語尾“-게”の下について、使役の意を表わす。㉞ 먹게 ~, 食べさせる。

(6가)-(6다)의 ‘되다’, ‘받다’, ‘당하다’는 접미사의 품사를 설정하였으나 (라)의 ‘시키다’에 대해서는 접미사의 품사를 인정하지 않고 타동사로 처리하였다. 이는 참고문헌으로 제시된 <동아새국어사전>, <큰사전>, <민중 국어대사전> 등의 기술을 참조한 것이라 생각된다.

‘되다’, ‘받다’, ‘당하다’의 용법 기술을 살펴보면, ‘되다’와 ‘받다’에 대해서는 동작성 명사와 결합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표현이 통일되지 않았으며, ‘당하다’의 기술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되다’나 ‘당하다’, ‘-(아/어)지다’의 경우에는 용법 설명과 대역표현(‘-になる’, ‘-られる’ 등)을 함께 제시한 것에 비해 ‘받다’나 ‘-게 하다’의 기술에서는 용법 설명만을 제시하였으며 ‘시키다’에 대해서는 대역 표현만을 제시하였고 다른 경우들과는 달리 용례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받다’와 ‘당하다’의 용법 설명에서는 ‘受身’이라는 용어를, 그리고 ‘-게 하다’에 대해서는 ‘使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되다’에 대해서는 동작이 스스로 이루어짐을 나타낸다고 기술하였으며, ‘지다’의 기술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서술하였다. 이러한 사전 기술상의 문제점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사전들을 참조하여 그대로 따른 부분이 많다는 점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¹⁰

다음으로 <오사카>에서의 ‘되다’, ‘받다’, ‘당하다’, ‘시키다’, 그리고 ‘-어지

10 참고로 <천리>의 주요 참고 문헌 중 하나인 <동아새국어사전>에서의 ‘되다’, ‘받다’, ‘당하다’, ‘시키다’, ‘-(아/어)지다’, ‘-게 하다’의 기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품사 처리나 용법 설명, 그리고 용례 제시에 있어서 <천리>와 유사한 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

다’, ‘-게 하다’의 사전 기술을 살피기로 한다.

(7) 가. -되다⁵ [接尾] ① (後ろに하다を付けることができる動詞的名詞に付いて動作が自らなされることを表して) …(に)なる : 걱정~心配になる ; 손해~損する, 損害を被る(受ける) ; 시작~始まる, 始められる ; 해결~解決する, 解決される ; 자리가 준비~席が用意される, 席の準備ができる ;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健康は完全に回復なさいましたか. お体はすっかりよくなりましたか. *하다動詞の하다の部分을되다に置き換えることにより受身形をつくる. この形式は하다動詞においては非常に生産的なものである. 사용하다[使用]する→사용되다[使用]される, 강탈하다[強奪]する→강탈되다[強奪]されるは하다-되다の明らかな例である.

나. -받다³ [接尾] (動作・行動を表す一部の名詞に付いて受身を意を表す) …を受ける, …される : 사랑~愛される ; 귀염~かわいがられる ; 버림~捨てられる ; 주목~注目される ; 협박~脅かされる, 脅迫される. * 사랑(귀염, 버림, 주목, 협박)을 받다とも言う. → 피동형(被動形), 맞다, 되다, 당하다(當-), 입다.

다. -당하다 탄하다 danhada (當-) [接尾] [여] (行動を表す一部の名詞に付き, その行動を) 受ける, 被る, …される : 피해~被害を受ける (피해를 입다も同じ意で用いられる) ; 강제~強制される ; 학생들 앞에서 창피~学生の前で恥をかかされる ; 거부~拒否される, 断られる ;

가. -되다 [접미] ① 명사에 붙어 동작이 스스로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말. ◀ 걱정~.

나. -받다 [접미] 어떠한 행동이 미처움을 표하는 말. ▶ 주목~.

다. -당하다(當-) [접미] [연변] 동작이 수동적임을 보이는 말. ▶ 창피~.

라. -시키다 [타] 하게 하다. 부리다. [make one do]

마. -지다¹ [조동] 어미 “-아•-어•-여” 아래에 쓰이어 무엇이 어떻게 되어 가는 뜻을 나타내는 말. ▶ 넘어~.

바. 하다³ [조동] [연변] …(中略)… ② 어미 “-게” 아래에 쓰이어 사역(使役)을 나타내는 말. ▶ 먹게~.

공박~ 脅される; 모욕~ 侮辱を受ける. * 1) 自分にとって理にかなわぬこと, 不満なこと, 不利なことにしばしば使用. 2) 助詞를/을を用いることもある. → 피동형(被動形).

라. -시키다² シキダ jik'ida [接尾] (하다動詞の語幹に付き使役を表して)…
 させる: 사직~ 辭職させる; 입학~ 入学させる; 구두를 수선~ 靴を修繕させる(直させる). → 사역(使役).

마. 지다⁹ チダ dsida [助動] …(中略)… ② (動詞の連用形に付いて受身の意を表し) …(ら) れる: 이 다리는 오년 전에 만들어졌다. この橋は5年前に作られた. → 피동형(被動形) * 朝鮮語의 受身表現の中に, 形の上で受身形をふたつ重ねていると考えられるものがある: 보여지다 ← 보이다+지다 見られる; 쓰여지다 ← 쓰이다+지다 使われる. 朝鮮語의 受身形動詞(自動詞も)·使役形動詞의 形態上の区分は明確ではないが, この形をとる場合は受身形であることがはっきりする.

바. 하다³ [助動] [여] …(中略)… ③ (用言の語尾「-게」とともに用いて使役を表して) …くする, …させる, …ようにする: 예쁘게 ~ (顔や身の回りなどを) きれいにする; 보게 ~ 見させる.

<오사카>에서는 '되다', '받다', '당하다', '시키다'에 대해 모두 접미사의 품사를 인정하였다. '되다'와 '시키다'는 용법 기술에서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명사와 결합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기술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으며, '되다'의 예문으로 제시된 '손해'는 '하다'와 결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또한 '받다'와 '당하다'는 행동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귀염'이나 '피해', '창피'와 같은 명사들은 행동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받다' '당하다'에 대해서는 조사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기술하였으나 '시키다'나 '되다'에 대해서는 그러한 점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지다'에 대해서는 동사에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던

데, ‘-게 하다’의 경우에는 용언에 결합하여 사역을 나타낸다고 기술하고 형용사의 예문도 제시하였다. 이 밖에 ‘되다’의 항목에서는 뒷부분에 ‘하다’와의 관련성을 기술하였고 ‘지다’의 항목에서는 이른바 이중피동형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당하다’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에 쓰인다는 참고 정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일본어 모어 학습자를 위하여 유용한 학습 정보를 제시하는 부분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다음의 (8)은 <코스모스>에서의 ‘되다’, ‘받다’, ‘당하다’, ‘시키다’, 그리고 ‘-어지다’, ‘-게 하다’ 구성의 사전 기술을 제시한 것이다.

(8) 가. =되다⁴ [dweda 도우에다 (有声音+) / ?tweda 툐우에다 (無声音+)], =되어 [dweo 도우에오 (有声音+) / ?tweo 툐우에오 (無声音+)] <=되어> (書) / =돼 [dwe 도우에 (有声音+) / ?twe 툐우에 (無声音+)] (話) ⇨ 되다¹ [接尾] (2字以上の漢字語+. 漢字語と되다とは時に分離し得, その際, 漢字語部分+-가/-이となる事がある. この場合は頭音d/?tはtとなる) ① (多くの漢字語他動詞+. 受身) …される. 이 건물들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되었다. この建物はその人たちによって建設された.

나. =받다² [ba^ʔta 바ッタ (有声音+) / ?pa^ʔta 파ッタ (無声音+)], =받아 [bada 바다 (有声音+) / ?pada 파다 (無声音+)], =받는 [bannwn 반뉘 (有声音+) / ?pannwn 판뉘 (無声音+)] ⇨ 받다¹ [接尾] ② (一部の漢字語+. 漢字語と받다とは時に分離し得, その際漢字語部分+-를/-을となる事がある. この場合は頭音b/?pはpとなる. 受身) …される. 이 점이 세상에서 널리 주목받는 점이다. 이것이世間で広く注目される点だ. 김^ㅏ박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ㅏ있다. / 김^ㅏ박사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고^ㅏ있다. 金博士はすべての人に尊敬されている. 그는 국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았다. 彼は国家から勲章を授与された. 나는 그 의사에게 수술받았다. / 나는 그 의사에게서 수술받았다.

わたしはその医者の手術を受けた.

다. =당하다² [daŋhada 닌하다 (有声音+)] / ?taŋhada 탄하다 (無声音+)], =당해 [daŋhɛ 닌へ (有声音+)] / ?taŋhɛ 탄へ (無声音+)] / =당하여 [daŋhajo 닌하요 (有声音+)] / ?taŋhajo 탄하요 (無声音+)] 《書》⇒ 당하다¹ [接尾] ㉔(一部の漢字語+. 漢字語と당하다とは時に分離し得, その際漢字語部分+-를/-을となる事がある. この場合は頭音d/?tはtとなる. 受身. 「悪い事をこうむる」の意) …される. 한국은 일본에 의하여 침략당했다. / 한국은 일본에 의하여 침략을 당했다. 韓国は日本によって侵略された. 조선어학회는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해산당했다. / 조선어학회는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해산을 당했다. 朝鮮語学会は朝鮮総督府によって解散させられた. 나는 그 사람한테 이 일을 같이 하자고 했지만 그 자리에서 거절당했어. わたしはその人にこの仕事を一緒にしようといったが、その場で断られた.

라. =시키다² [ʃikʰida 시키다 (有声音+)] / ?ʃikʰida 시키다 (無声音+)], =시켜 [ʃikʰjo 시키요 (有声音+)] / ?ʃikʰjo 시키요 (無声音+)] [接尾] ㉔ …させる 《漢字語動詞 (漢字語+하다) の漢字語+. 使役形を作る. 漢字語と시키다とは時に分離し得, その際漢字語部分+-를/-을となる事がある. この場合は頭音はʃとなる》.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공부시키고 있다. わたしはうちの子たちに朝鮮語を勉強させている. 학생들에게 운동을 시켰다. 学生たちに運動をさせた. 공부는 열심히 시키려고 했지만 요새 아이들은 좀처럼 공부를 안 한다. 勉強は熱心にさせようとしたが, 近ごろの子供たちはなかなか勉強をしない. 나는 아들에게 사치시키지 않는다. / 나는 아들에게 사치 안 시킨다. わたしは息子にぜいたくさせない. 나는 그렇게까지 해서 딸에게 학습시키지는 못한다. / 나는 그렇게까지 해서 딸에게 학습은 못 시킨다. わたしはそんなにまでして娘に学習させられはしない.

마. =지다⁴ [dʒida 지다], =저 [dʒo 조] 《III+》 [接尾] …(中略)… ㉔(一部

の他動詞+ . 一部の受身形+ . 受身形または自動詞を作る) …られる. 꺾어지다 折れる, 折られる. 갈라지다 分かれる, 分けられる. 열어지다/열려지다 開けられる. 지워지다 消される. 쓰여지다 書かれる. 알려지다 知られる. 보여지다 見られる.

- 바. 하다¹ [hada ハダ], 해 [hɛ: へー] / 하여 [hajo ハヨ] (書) …(中略)…
 ▶ 1-게/1-게끔 ~ [動詞] …(中略)… ② (動詞·存在詞+) …させる.
 그는 경숙이로 하여금 아기를 잘 보살피게 했다. 彼は慶淑をして子供の面倒をよく見させた. 나는 아이들을 공부하게 했다. わたしは子供たちに勉強させた. 나는 내일 학생들에게 빨리 가게끔 하겠다. わたしはあした学生たちに早く行かせよう.

<코스모스>의 기술은 간결하고 통일성을 지니며 풍부한 발음 정보와 결합 정보를 제시한다. ‘되다’, ‘받다’, ‘당하다’, 그리고 ‘시키다’의 경우, 이들이 주로 한자어와 결합하며 때에 따라서는 조사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되다’의 경우 ‘2차 이상의 한자어’, ‘받다’와 ‘당하다’는 ‘일부한자어’, 그리고 ‘시키다’의 경우는 ‘하다’와 결합하는 한자어 동사와 함께 쓰인다고 기술하고 있어 다소 통일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한편 <코스모스>는 각 표제어에 대해 비교적 풍부한 예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받다’에 대해서는 ‘-에게/-에게서’와 같은 조사 교체 양상을 보여주는 예문을 제시하는 것에 비해, ‘당하다’에 대해서는 조사 ‘-을/를’이 결합한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의 ‘지다’에 대해서는 문장 예문이 아니라 어휘 표현만을 용례로 제시하였으며, 피동형에 다시 ‘-어지다’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코스모스>는 일본어 모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학습자 사전으로, 주로 문장체에 쓰이는 표현이라는 정보[(書)]나 ‘-고 있다’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정보[㉠] 등 일본어 모어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학습 정보들을 풍부히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당하다’에 대해서는 나쁜 일과 관련하여 쓰인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다음의 (9)에서는 <소학관>에서 ‘되다’, ‘받다’, ‘당하다’, ‘시키다’, 그리고 ‘-어지다’, ‘-게 하다’ 구성이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 살피기로 한다.

- (9) 가. 되다¹ [tweda トゥエダ] [되어서/되서] …(中略)… II [接尾] 1 《動作性名詞に付いて自動詞または受動動詞をつくる》…になる, …(さ)れる. ¶ 시작~ 始まる / 출발~ 出発する / 염려~ 心配になる / 주목~ 注目される.
- 나. -받다³ [pa^hta] [接尾] 《一部の名詞に付いて》「こうむる・あう」の意を表わす: …される. ¶ 귀염~ かわいがられる / 사랑~ 愛される / 위안~ 慰めてもらう / 인정~ 認められる / 주목~ 注目される / 버림~ 見放される / 다과를 대접~ 茶菓のもてなしを受ける. ⇨ 되다¹ [対照表]
- 다. -당하다² [當-] [tanhada] [한受] [接尾] [-당하여서/-당해서] 《動作性名詞について受動的動作動詞をつくる》迷惑·被害などをこうむる意を表わす: …される. ¶ 체포~ 逮捕される / 사절~ 断わられる / 거부~ 拒否される / 공격~ 攻撃される / 부상~ 傷を負わされる / 조롱~ 从からかわれる / 수모~ 侮辱される. ⇨ 되다¹ [対照表]
- 라. -시키다² [sik^hida] [接尾] 《動作性名詞に付いて》…(するように) させる. ¶ 퇴학~ 退学させる / 발전~ 発展させる / 억지로 양보~ 無理に讓歩させる.
- 마. 지다⁶ [tjida チダ] [補動] [지어서/저서] …(中略)… 2 《他動詞の連用形に付いて》受動形をつくる: …れる, …られる. ¶ 만들어~ つくられる / 주어~ 与えられる / 보내~ 送られる.
- 바. 하다² [hada] [한受] [補動] …(中略)… 4 《-게 하다の形で》① 《動詞の語幹に付いて》使役を表わす: …させる. ¶ 학생을 그리로 가게 ~ 学生をそこに行かせる / 아이에게 책을 읽게 ~ 子供に本を読ませる. ⇨ 이⁻²¹ [ㄹ지]

<소학관>의 경우, ‘되다’와 ‘받다’, ‘당하다’, ‘시키다’ 모두 접미사로서의 품사를 인정하였는데, ‘받다’, ‘당하다’, ‘시키다’에 대해서는 별개의 표제항으로 독립시킨 데에 비해 ‘되다’에 대해서는 별개의 표제항으로 다루지 않고 함께 기술하고 있어 그 처리가 일관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되다’와 ‘당하다’, 그리고 ‘시키다’에 대해서는 ‘동작성 명사’에 붙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받다’에 대해서는 ‘일부 명사’라고만 기술하였다. 그리고 ‘되다’에 대해서는 ‘受動動詞’, ‘당하다’에 대해서는 ‘受動的動作動詞’, ‘-어지다’에 대해서는 ‘受動形’을 만든다고 하였으나, ‘받다’에 대해서는 그러한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게 하다’에서는 ‘使役’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나 ‘시키다’에 대해서는 용법 설명 없이 대역 표현만 제시하였다. 한편 ‘당하다’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되다’의 기술에서는 피동형을 만드는 방법이라 하여 ‘되다’, ‘받다’, ‘당하다’의 결합 여부를 대조표로 제시하였는데¹¹⁾ 이는 일본어 모어 학습자를 고려한 장치라 평가할 만하다.

4. 나오는 말

지금까지 일본에서 편찬된 한일 사전에서 한국어의 피동, 사동 표현이 어떨

11 아래에 ‘되다’, ‘받다’, ‘당하다’의 대조표를 제시해 둔다.

対照表 受身形のつくり方2

	되다	받다	당하다
게재(掲載)	○		
형성(形成)	○		
전개(展開)	○		
존경(尊敬)		○	
칭찬(称赞)		○	
협박(脅迫)		○	○
살해(殺害)	○		○

▶ 漢字語に하다がついてできた他動詞は, 하다を되다·받다·당하다に変えることによって受身形をつくることができる. このうち, 被害を被る意味を表わす「迷惑の受身」には, おもに당하다とごく一部で 되다가用いられる. また받다는迷惑と迷惑でない場合のいずれにも用いられる. ⇒ -히-³ (Xモ)

게 기술되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사전은 기존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보수성을 지니는데, 일본에서 편찬된 초기 한일 사전의 경우, 한국에서 편찬된 한국어 사전들을 참조하여 그 기술을 번역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의 한국어 사전들이 지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물론 <코스모스> 이후의 사전들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본어 모어 학습자를 고려한 기술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기존의 사전들이 갖고 있던 문제점도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일본어 모어 학습자들을 위해 사전에서 어떠한 정보를 간결하고 유용하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이후로 일본 내의 한국어 학습자 수는 급격히 늘어났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한국어 교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도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로 여러 가지 한국어 교재들이 편찬되고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¹²이 간행되는 등 한국어 교육에서의 연구 성과들도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본고에서 살펴본 피동·사동 표현은 비교적 고급표현에 속하는 경우로 한국어 교재들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한국어의 피동·사동 표현에 대한 효과적인 학습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일본어 화자를 위한 좀 더 나은 한국어 학습사전의 편찬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동언(1995), 『뜻풀이로 본 국어 사전 편찬사』, 『한국어학』 2.

12 ‘-이-’, ‘-히-’, ‘-리-’, ‘-기-’ 등이나 ‘되다’, ‘받다’, ‘당하다’, ‘시키다’는 일본에서 편찬된 한일사전들에서 각각 독립된 표제어로 설정되어 접사로 기술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비해 <한국어 학습사전>에서는 ‘-이-’, ‘-히-’, ‘-리-’, ‘-기-’ 등을 표제어로 설정하지 않았으며, ‘되다’, ‘받다’, ‘당하다’, ‘시키다’에 대해서도 접미사의 품사를 따로 인정하지 않고 동사의 품사 내에서 함께 기술하고 있다.

- 남광우 외(1973), 「국어사전의 어학적 분석 연구(1)」, 『어문논집』 8, 중앙어문학회.
- 배주채(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사전 개관」, 『한국사전학』 14.
- 유현경·남길임(2009), 『한국어 사전 편찬학 개론: 사전 편찬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역락.
- 이병근(1986), 「국어사전 편찬의 역사」, 『국어생활』 7 [이병근(2000)에 재수록].
- 이병근(1992), 「근대국어 시기의 어휘정리와 사전적 전개」, 『진단학보』 74 [이병근(2000)에 재수록].
- 이병근(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 이안구(2007), 피동·사동 표현의 사전 기술 양상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32.
- 허재영(2005), 「국어사전 편찬 정책 및 그 역사」, 『국어교육연구』 15.
- 홍중선(1996), 「국어 사전 편찬, 그 성과와 과제(1)」, 『한국어학』 3.
- 홍중선(2008), 「국어 사전 편찬의 역사(1)」, 『우리어문연구』 30.
- 노마 히데키·나카지마 히토시(2005), 「일본의 한국어 교재」, 『한국어교육론』 1, 한국문화사.
- 간노(1992), 「외국인 편찬 한국어 대역 사전의 현황과 문제점」, 『새국어생활』 2-4.
- 서상규(2003), 『한국어 교육과 학습사전』, 한국문화사.
- 菅野裕臣(1992), 「朝鮮語の辞書」, 『世界の辞書』, 研究社.
- 油谷幸利(1985), 「朝鮮語辞書案内」, 『月刊言語』 14-4.
- 巖基珠(2006), 「日本における朝鮮語辞典の現況」, 『専修大学外国語教育論集』 34.

<<사전류>>

-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문세영 (1938) 영창서관.
- 『표준 조선말 사전』 이운재 (1947) 아문각.
- 『큰사전』 한글학회 (1947-57) 을유문화사.

- 『현대 학생 우리말 사전』 유열 (1950) 현대사.
 『국어새사전』 국어국문학회 (1958) 동아출판사.
 『동아 새국어사전』 (1959), 동아출판사.
 『표준국어사전』 신기철, 신용철 (1958) 을유문화사.
 『새사전』 홍웅선, 김민수 (1959)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국어대사전』 이희승 (1961) 민중서림.
 『금성판 국어대사전』 김민수 외 (1991) 금성출판사.
 『우리말 큰사전』 한글학회 (1992) 어문각.
 『표준 국어대사전』 국립국어연구원 (1999) 두산동아.
 『조선어 소사전』 과학원 (1956) 학우서방.
 『조선말 사전』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사전연구실 편 (1960) 과학원출판사.
 『현대 조선말 사전 (제2판)』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 연구소 (1981) 백의.
 『조선말 대사전』 과학원 언어연구소 (1992) 동광출판사.
 『연세 한국어 사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두산동아.
 『한국어학습사전』 서상규 외(2003) 신원프라임.
 『朝鮮語辭典』 朝鮮總督府 (1920) 国書刊行会.

[附記] 본 연구는 松山大學 教育研究助成(平成二十年度)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임을 밝혀 둔다.